

전남도, 영농철 인력 확보·공급 '팔 걷었다'

재배 면적 증가로 지난해보다 7만명 늘어난 84만여 '일꾼' 필요 농촌인력증개센터·계절근로자 등 공공부문 인력 공급 대폭 확대

영농철(4~6월)을 맞은 전남 농촌지역에 필요한 일꾼이 84만 1000명으로 추산됐다. 주요 농작물 재배 면적 증가로 작업량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이맘때 인력 수요(77만 1000명)보다 많아졌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전남도는 이들 중 민간 일자리증개업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33만 6000명을 농촌인력증개센터, 계절근로자(공공형 포함), 농촌봉사활동 인력 등으로 공급해 원활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양파·마늘·고구마 배 재배 면적 증가...농촌 일손 늘어 =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본격적 농번기(5~6월)가 다가오면서 양파(1만ha)·마늘 수확, 배

지 씨우기, 고구마 심기(정식·1만 1100ha) 등 3600ha의 농작업에 필요한 농촌 일손이 84만 1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농작업 중점기간(5월 1일~6월 19일·50일 간)을 정해 안정적 농촌 일손 확보·공급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군 현장 농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무안·신안·고흥 지역 양파 수확에 12만 3000명, 나주 배 농가 11만명, 고흥·신안 마늘 수확에 7만 4000명, 영암 고구마 심기 작업에 9만 7000명의 일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감안, 19개 시·군에 설치된 37개 농촌인력증개센터를 통해 7만 8000명의 일손을 확보·공급하는 한편, 농업이 외국인 노동자

를 직접 고용해 일정에 맞춰 소규모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인 공공형 계절근로로 1만 9000명을 투입한다. 이미 322명(8개 시·군)을 10개 농가에 배정했고 이달 말부터 본격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22만 4000명도 순차적으로 농가에 투입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우선 594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9개 시·군 농가에 배정했다.

영농지원 발대식, 청년 봉사캠프 등 청년·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봉사활동 참여 일손(3만명)도 확보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인건비 상승 불가피·상시 점검으로 공공인력 지원 총력=전남도는 본격적인 농사철, 모자란 일손을 인부들로 채워야 하는 농가들이 인건비 부담을 겪지 않도록 시·군과 연계, 상시 점검 체계를 갖추고 낮은 단가로 공공인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주의 경우 하루 인건비를 11만원으로 권장하고 인근 영암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건비 기준

을 책정할 것을 제안했다.

민간 일자리제공업체의 인건비의 경우 현재는 대략 13만~15만원 수준으로 고흥(남자 15만, 여자 11만~13만), 영암(남자 13만, 여자 10만), 담양(남자 12만, 여자 9만), 곡성(남자 10만, 여자 8만) 등에서 형성되고 있지만 작업량이 많아 일손이 많이 필요할 때는 더 오르는 등 시기에 따라 다르다.

전남도는 농가 생산비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농번기 인력을 확보해 공급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농촌 일손돕기도 적극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일손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농촌인력증개센터, 계절근로자 등 공공부문 인력 공급을 대폭 확대해 농업인의 적기 영농활동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친환경농업(법)인 모집 도, 친환경농경지 조성 사업

전남도가 '2025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할 친환경농업(법)인을 모집한다.

친환경농경지 1ha 이상에서 친환경 과수·채소를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 계획이 있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24일까지 시·군 친환경농업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전문단지 조성 사업은 다양한 수요에도 생산에 어려움이 많은 과수·채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작했다.

선정되면 친환경 과일과 채소류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구축을 위해 1곳당 최대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비 부담 비율은 지방비 보조 70%, 자부담 30%다.

전남도 관계자는 "생산단계부터 유통시설까지 현대화해 소득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전남도는 최근 16개 시·군의 22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대책 등을 공유했다. <전남도 제공>

광주·전남 의원들, 고향사랑기부 '품앗이'

전남도의회·광주 남구의회 1대 1 교차 릴레이 기부

도의원과 기초의원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기부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정철(민주·장성 1) 의원은 최근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과 1대 1 교차 기부 형태로 하루 1000원씩 1년 간 기부를 실천한다는 의미를 담아 36만 5000원을 상호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 15일 전남도의회 기금운용개선특별위원회에서 참석한 정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했다.

정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제도로, 상호 기부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지역민들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해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은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취지에 걸맞게 도시와 농촌, 광주와 전남이 상생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을 이어 제 2호 참여자로 박원종(민주·영광 1) 의원이 지목돼 릴레이 기부 캠페인에 나선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3억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한 바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주수 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이 제공되고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의료 취약지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 안간힘

도, 16개 시·군 22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병원장 간담회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환자 불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남도가 의료 취약지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의료취약지(17곳)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남지역 응급의료현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6개 시·군의 22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공유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지역주민 30% 이상이 권역응급의료센터(목포한국·순천성가톨릭로병원)로 1시간 이내 도달하는 게 어렵거나 30분 이내 지

역응급의료센터(목포중앙·여천전남·화순전남대병원)로 도착하는 게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진도한국병원, 완도대성병원, 구례병원, 무안병원, 신안대우병원 등 10여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장들은 의료 현장 실태를 알리고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전남도는 중앙부처에 '공중보건의사 운영제도 지원' 개정을 건의해 기존 응급실 근무로 제한된 업무 범위를 올해부터 외래진료도 가능하도록 확대했고 지방의료원에만 배치되던 공공간호사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까지 확대 배치가 이뤄졌다.

전남도는 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40억 6700만원) ▲섬·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1대·45억 6000만원) ▲취약지 헬기 착륙장 설치(17개소·7억원) ▲섬 지역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건립(3개소·110억원) ▲취약지 응급실 간호인력 파견사업(7명·3억 9400만원) ▲공공간호사 지원(20명·1억 6000만원) ▲도서마을 자동심장중격기 설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150개소·4억 6600만원) 등으로 취약지 응급의료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의료 자원이 부족하고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 응급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병원이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도, 보일러 교체 지원 대상 확대

복지시설·다자녀 가구 등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복지시설의 보일러 교체 기회가 생겼다.

전남도는 올해 3억8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635대) 보급 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저소득층·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환경기술포수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 구입·설치비를 지원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

부모가족 뿐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게도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17구당 정부 보조금(지방비 포함) 60만 원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 가구가 보일러 제조·판매업체(경동나비엔·귀뚜라미·대성엘텍에너지스·알토앤대우)의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제조업체가 추가로 10만~20만 원을 지원해 일부 자부담 없이 무상 교체가 가능하다.

관할 시·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만 6458대를 지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운영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원인더스트리㈜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망기업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원인더스트리(주)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원룸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삿시)교체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